

스페인 하숙, 단조로움 극복한 진정성의 힘



나영석 PD의 tvN '스페인 하숙'이 6.4%라는 비교적 좋은 시청률과 시청자들의 호평 속에 지난 주말 막을 내렸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은 3단계에 걸쳐 변화했다. 1단계는 호평 일색이었다. 하지만 2단계에 이르러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그러다 3단계에 다시 호평으로 반전 성공적으로 끝났다.

시청자들의 호평 속 종영...시청률 6.4%

부연 인터넷 화제성까지 떨어졌다. 그런데도 반응을 이뤄낸 것에서 나 PD의 저력을 느낄 수 있다.

'스페인 하숙'이 처음에 호평을 이끌어낸 요인은 설정의 절묘함이었다. 여행지에 가서 밥 먹거나 밥 해주는 설정이 그동안 밈됐었고, 또 외국인에게 한식을 먹이고 그 반응을 관찰하는 프로그램도 많았다. 그러던 차에 '스페인 하숙'이 스페인에 가서 밥을 해먹어줬다고 하자 이상한 설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스페인 하숙'이 준 첫 느낌은 '신선하다'였다. 그냥 외국 관광지에서 한식을 파는 설정이라면 상상했을 텐데, 순례자들에게 따뜻한 집자리와 먹을 것을 대접한다는 설정이 절묘했다. 이것이 그냥 음식을 먹거나 팔기만 하는 여타 프로그램들과 대비되는 차별성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너무 단조로운 구성이 문제였다. 순례자들이 찾아오면 간단

한 인사를 나누는 후에 밥을 해먹고, 다음 날 아침에 또 밥을 해먹고 후 작별하는 구성이 반복되자 '이젠 '윤식당' 현지에서 먹힐까' '강식당' 등이 여행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설정이고, 비스 코리아는 해외에 나가서 밥해주는 설정이다. '커피프렌즈'는 카페를 여는 설정이었지만 여기에도 식사메뉴가 등장했다. 올리브 채널에선 '국경 없는 포차'가 해외 주점 영업에 나섰다. 여기에 '스페인 하숙'까지 가세하면서 '여행' '음식', 이 두 가지 코드의 자기복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페인 하숙'은 다시 반전에 성공하며 호평을 이끌어낸 것이다. 반전의 이유는 '진정성'이었다. 나 PD는 자극적인 설정을 추가하지 않고 지친 여행자들에게 정성 들여 음식과 집자리를 제공한다는 기본 성격을 지켜나갔다. 그

러자 거기에서 위로받고 평안을 느끼는 시청자들이 많아졌다.

순님이 단 한 명일 때도 이들은 입금에 올리는 수리상 같은 한 끼를 준비했다. 한국인 순례자에게 특히 각별한 한식이었다. 신선한 재료를 구해 제육볶음, 된장찌개를 만들고, 엿기름 티백으로 만든 식혜와 파이를 후식으로 냈다. 다음 날엔 순례 중에 요기하러 샌드위치까지 쥐여줬다.

장사라기보다 넉넉한 손님대접이었다. 이것이 요즘 세상에서 느끼기 힘든 '정'을 느끼게 해줬다. 차승원 유해진, 배정남의 여진이 하숙하면서도 진솔한 모습은 옛날 하숙집 정취를 전해주기도 했다. 그런 모습이 지친 순례자와 시청자를 동시에 위로해준 것이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비슷한 설정이어도 진정성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스페인 하숙'이 보여준 셈이다. 다만, 여행과 음식 방송 범람 속에서 앞으로 차별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숙제로 남았다.

'롱리브더킹: 목포 영웅' 팬들 놀랄 역대급 싱크로율



영화 '롱리브더킹: 목포 영웅'이 역대급 싱크로율을 드러냈다.

2013년 '은밀하게 위대하게' (695만 명)부터 2015년 '내부자들' (707만 명), 2017년 '신과함께-죄와 벌' (1441만 명) 2018년 '신과함께-인과연' (1227만 명)까지 탄탄한 스토리와 흥미로운 설정, 색다른 캐릭터를 그려낸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꾸준히 흥행에 성공했다.

그리고 2019년 6월 19일 '롱리브더킹: 목포 영웅'이 앞서 개봉한 웹툰 원작 영화들의 흥행 공식을 다시금 재현할 예정이다.

'롱리브더킹: 목포 영웅'은 우연한 사건으로 일약 시민 영웅이 된 거대 조직 보스 '장세출'이 국외의 원 신겨에 출마해 세상을 바꾸기 위해 펼치는 통쾌한 액션극을 그린 작품.

'롱리브더킹: 목포 영웅'은 누적 조회수 1억 뷰, 누적 구독자 197만 명(카카오페이지)을 보유한 웹툰 '롱리브더킹'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제작 단계부터 큰 화제를 일으켰다.

'롱리브더킹'은 거대 조직 보스였던 '장세출'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기를 담은 웹툰으로 다소 무거운 소재를 유쾌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그러나며 수많은 독자들을 매혹시켰다. '롱리브더킹: 목포 영웅'의 연출을 맡은 강윤성 감독은 '차분하고 정직한 마음씨를 가진 장세출'이라는 인물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변화하는 이야기가 좋았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강윤성 감독은 "땀에 붙어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다. 상황이 진짜같이 느껴져야 관객들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웹툰을 영화화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원작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만화 속 캐릭터들의 회화된 설정은 덜어내고 '현실에 있을 법한' 캐릭터를 탄생시킨 점이나, 고공 크레인 사건을 목포 대교 버스 추락 사건으로 각색한 점 등에서 그 노력을 읽을 수 있다. '롱리브더킹: 목포 영웅'은 6월 19일 개봉한다.

'봄밤' 정해인·한지민, 드라마·출연자 화제성 1위



'봄밤'의 마법이 시작된 것일까. 굿데이퍼포레이션이 지난 27일 발표한 5월 4주차 TV 화제성 드라마 부문 1위는 MBC 수목 드라마 신작 '봄밤'이었다. '봄밤'은 밤 9시대의 파격 편성, 멜로 거장 안판석 PD와 김은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방영 전 높은 기대감이 형성된 바 있다. 방송 이후 JTBC '발 살 자주는 누나'와 닮아 있는 듯한 드라마 속 분위기에 다양한 시청 반응이 형성되며 높은 첫 주 화제성을 이끌어 냈다. 출연 중인 배우 정해인은 드라마 출연자 부문 1위에, 한지민은 2위에 이름을 올렸다.

2위는 순위가 1계단 하락한 tvN '그녀의 사생활'이었다. 친모 이일화와 재희한 라이언(김재욱)의 에피소드, 덕미와 라이언의 '은 메로'가 화제 되었으나 화제성 점수는 전주 대비 27.78% 감소했다. 출연자 화제성 부문에서는 김재욱이 3위, 박민영은 5위를 기록했다.

KBS2 수목 신작 '단, 하나의 사랑'이 드라마 부문 3위에 진입했다. 네티즌은 신선한 소재, 배우들의 호연에 긍정적인 평을 보였으나 유치한 스토리, 몰입을 방해하는 CG에는 아쉬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오열 연기로 시청자의 눈물샘을 자극한

대배 순위가 2계단 하락하여 7위를 기록했다.

SBS 금토 드라마 '녹두꽃'이 드라마 화제성 7위를 차지했다. 배우 조정식은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출연자 화제성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조정식은 극중 동생인 백이현(윤시윤)은 물론이고 감정이 싸트고 있는 송자인(한예리)과의 엇갈린 관계에서 섬세한 감정 연기를 보여준다는 평을 이끌어 냈다.

8위는 배우 한지민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논란으로 화제성이 급등한 SBS '초면에 사랑합니다'였다. 다음으로 MBC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2주 연속 화제성이 하락세를 보이며 전주 대비 순위가 2계단 내려 앉아 9위를 차지했다.

지난주 드라마 부문 2위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던 SBS '절대그이'가 드라마 부문 10위를 기록했다. 제작발표회, 첫 방송 등으로 화제성이 형성되었던 지난주 대비 화제성 점수가 절반 이상 감소하며 순위가 급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진구는 드라마 출연자 부문 9위에, 방민이는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본 조사는 TV 화제성 분석 기관 굿데이퍼포레이션이 2019년 5월 20일부터 2019년 5월 26일까지 방송 중이거나 방송 예정인 드라마 27편을 대상으로 뉴스 기사, 블로그/커뮤니티, 동영상, SNS에서 발생한 네티즌 반응을 분석하여 5월 27일에 발표한 결과이다.



오늘의 순서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음력 4월 25일)



▶**경미** 혼자서 제아무리 애써도 상대방의 마음 탓에 갈등이 고조된다. 기, 오, 남성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육체도 마음도 병들고 있으니 지혜를 얻어 전진할 것. 기혼자는 딸 문제로 걱정거리 많았다.



▶**사미** 서로 피하려고 하니 엇갈린다. 지금은 인내만이 약이다. 좀 더 이해해 필요. 그 누구보다 자신의 의견을 따라 결정을 할 것. 5, 9, 11월생에게는 반만 받을 것. 지출이 많으면 수입도 많을 것이다.



▶**홍미** 성급히 굴지 말고 침착하게 처리할 것. 혼자서 하려고 하니 얻어도 못 내고 타인과 함께 하자니 불만스러운 조건이 붙는 격. 3, 4, 12월생과는 동업을 하지 말 것. 지금은 힘들어도 풀릴 수. 남, 서쪽에서 귀인이 온다.



▶**정미** 버는 것은 있어도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짜증내지 말 것. 기, 남성에게 말을 듣고 그에게 맡겨라. 사랑싸움은 본인에 의한 실수로 일러. 시인하고 협력하라. 별거는 이혼의 원인이 되니 2, 4, 7월생은 조심할 것.



▶**을미** 2, 7, 12월생 동업자와 충돌할 등,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한 발 양보함이 좋겠다. 기, 오, 여성이 생각으로는 천하를 손에 쥔 것 같지만 뜻대로 안 될 등. 인과관계를 잘 따져 새로운 터전에 도전함이 어떨지.



▶**정미** 있는 그대로 액면대로 대할 것. 힘든 일 혼자서는 해결 못할 등. 오, 흥, 남성에게 도움과 이해가 필요할 때. 건강이 좋지 않으면 북쪽의 약을 복용하고 마음에 병이 들었으면 아주 가까운 상대와 상의하라. 만사형통의 보약이다.



▶**경미**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다 관재수 따를 등. 7, 11, 12월생은 긴 안목으로 상대를 대할 것. 즐거움도 좋지만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기, 오, 여성이 동분서주 바쁜 가운데 제 길 찾은 운임을 알라.



▶**사미** 의견이 맞지 않아 언쟁이 있을 수. 고집만 내세우지 말고 이해하는 미덕을 길러라. 1, 3, 6월생 지금의 힘든 상황을 참고 견딜 때 기, 오, 여성이 당신을 도와 기회를 주니 길이 열려 힘차게 뚫어 나갈 수. 자신감을 가질 것.



▶**을미** 처음에는 자신만만해 하지만 무슨 일든 끝맺음이 없으니 아니한 못하다. 적극적인 활동 여하에 따라 대운이 열릴 등. 1, 5, 7, 9월생 애정의 갈등 심각하나 극단적 생각은 금물. 양보하는 것만이 모두를 위하는 길.



▶**정미** 이루고자 하는 뜻은 가산하나 조건을 내세운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자 없음을 알라. 사랑에도 단서를 달지 말 것. 2, 5, 9월생 내만의 욕망은 스스로를 퇴보시키는 길이다. 여러 갈래 생각을 정리함이 현명한 시점이다.



▶**경미**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다 남의 눈에 거슬려 결국은 내 것마저 빼앗긴다. 4, 8, 12월생 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소리를 알 것. 부동산, 식품 업계는 침체 상태를 벗어나 호황의 날을 맞게 될 등.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다.



▶**사미** 남에게 베풀 줄 알라. 가지려는 욕심만 강하니 주위 사람들로부터 핀잔 듣는다. 연상의 사람으로 인해 마음고생 있을 수. 두 길은 위태로우니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주의. 7, 8, 9월생 푸른색으로 단장해 봄이 어떨지.